

탈북 농업 연구자가 본 北 식량난 “4백만 명 굶는다”

입력 2023-03-07 08:00:25

취재K

북한 지난해 식량 451만톤 생산
산술적으로 인구 16% 식량 부족
우리보다 농지 넓지만
기술 부족
밀·보리 무리하게 전환하다 실패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선임연구원

북한 식량난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통일부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끝난 노동당 전원회의는 이례적으로 농사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삼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해야 한다"라면서 간부들을 질타했다. '미사일 개발하다 이렇게 됐다'라고만 보기에 북한 사정은 더 복잡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북한 농업을 연구하고 있는 김혁 선임연구원(2003년 탈북·정책학 박사) 자문을 받아 북한 식량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매년 100만 톤 넘게 식량 부족...400만 명 굶는다

농촌진흥청은 위성 사진으로 북한의 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매년 관측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451만 톤이다. 1년 전보다 전체 생산량은 18만 톤, 쌀 생산량은 9만 톤 줄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연간 곡물 수요량(사료 제외)을 560만 톤 정도로 추산한다. 식량 생산량이 정체·감소 국면인 걸 감안하면 매년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하다. 김혁 연구원은 "대략적으로 북한 인구의 15~16% 가량, 400만 명 정도가 식량 부

족 상태"라고 계산했다.

2022년 북한의 주요 식량작물 생산량

구분	계	쌀	옥수수	감자/고구마
재배면적 (천ha)	1899	502	748	351
수량 (kg/10a)	-	413	209	139
2022 생산량 (만톤) (A)	451	207	157	49
2021 생산량 (만톤) (B)	459	216	159	57

KBS 자료 농촌진흥청

식생활과 국토 면적이 비슷한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식량 작물 생산량이 472만 톤이었다. 쌀(350만 톤)과 감자·고구마(89만 톤)이 대부분이다. 얼핏 보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우리는 필요한 식량의 60%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10만~20만 톤 수준의 식량을 들여올 뿐이다.(정확한 수입량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육류 소비가 적은 북한은 우리보다 곡물 의존도가 훨씬 크다. 같은 양의 식량 작물도 북한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한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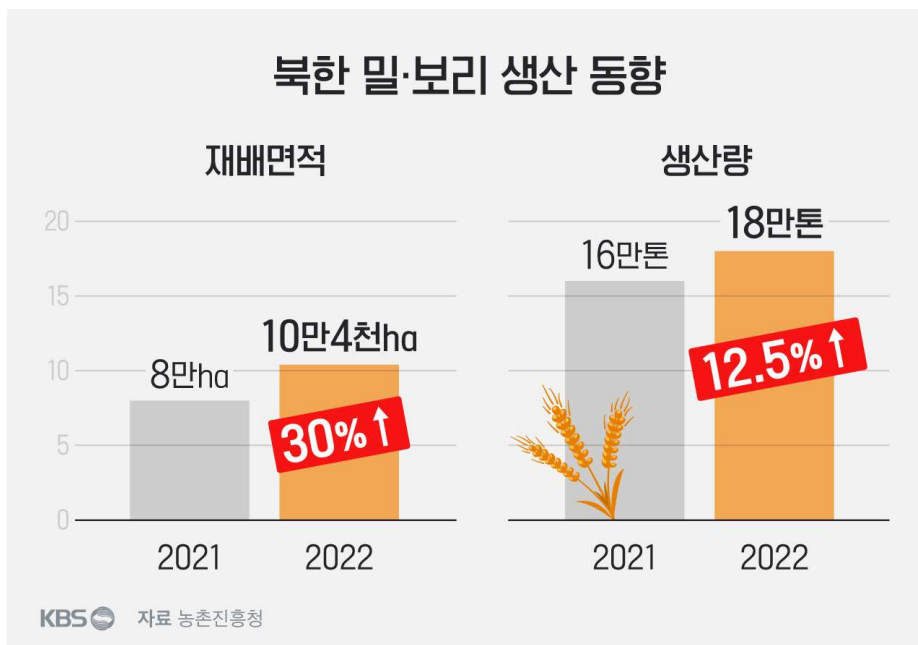
■ 우리보다 논밭 넓은 北…밀·보리로 전환

북한의 경지면적(189만ha) 자체는 우리(153만ha)보다 넓다. 하지만 영농 기술이 부족하고, 수확 후 저장 능력도 부족해 버리는 게 많다.(2019년 FAO는 북한의 감자 수확 후 손실률을 20%로 추산했다.) 우리가 99%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를 북한에선 주력 작물로 키운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김혁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 낱알을 벗긴 뒤 말려 쌀 형태로 만든 뒤 '강낭밥'으로 지어 먹는다"라고 설명했다.



농경지에서 농업 지도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옥수수 비중을 줄이려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文明)하게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겠다”면서 “농작물 배치를 대담하게 바꿔 벼농사와 밀·보리농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밀·보리 재배면적이 1년 만에 30% 급증한 배경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밀과 보리는 이모작이 쉽다. 옥수수만 키우는 것보다 같은 농지에서 식량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 또 북한 토질은 산성화가 심해 전체 국토의 15~17%만 농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력(地力)을 많이 소비하는 옥수수보다 밀·보리가 이런 땅에서 더 맞다고 김 위원장은 판단한다.

■ 성급한 개혁에 수확 적기 놓쳐…"부족량 더 커질 수도"

하지만 성급한 농업 개혁이 식량 생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고 김혁 선임연구원은 분석한다. 김 연구원은 "북한에선 기후 문제로 우리보다 늦게 5월~6월에 모내기를 하는데, 밀을 걷을 시기와 겹친다"라면서 "마침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 비상방역 체계에 들어가면서 영농철 노동력 투입이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밀·보리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북한 사정에 맞게 이모작 체제 전환엔 실패한 것이다.

또 논 벼가 채 익기도 전에 무리하게 가을 밀을 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당에서 밀 농사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가뭄·집중 호우 등 기상 악재도 겹쳤다. 농업 구조를 바꾸려면 관개시설을 정비하고 기계화율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에선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산 농기자재 도입이 제한되고, 농업기술 보급이 잘 되지 않았다.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 관개공사 강력 추진 ▲ '새롭고 능률 높은' 농기계 보급 ▲ 간석지 개간과 경지면적 확대 등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혁 연구원은 "만성적인 연료 부족 문제와 봄 가뭄 예측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곡물 낱알 수가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이 볼 때 북한 식량 생산량 3백 만 톤 후반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장혁진 기자의 기사 모음